

#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 — 濟州島를 중심으로 —

高橋公明

金昌奎 : 譯

### 目 次

- |         |                   |
|---------|-------------------|
| 머리말     | Ⅲ. 豆禿也只, 飽作干, 頭無岳 |
| I. 以船爲家 | Ⅳ. 全羅道, 濟州島, 北九州  |
| Ⅱ. 水賊   | 맺음말               |

## 머 리 말

近年, 「倭寇世界」라든지 「環支那海」라고 하는 地域概念이 歷史研究中에 市民權을 얻어냈다.<sup>1)</sup> 이런 狀況을 만들어낸 契機는 틀림없이 塚本學씨가 발표한 짧은 著에서도 印象的인 論文에 있다. 塚本씨는 日本國家史·日本民族史·日本列島上의 人類社會史는 別개의 개념으로 하고, 특히 최종적 立場에서 歷史研究의 必要性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것은 「日本國이라는 것의 一體性을 無條件 前提로 한다」는 당시의 연구의 現狀에 강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推定되지만 그러한 前提를 打破하는 地域概念의 하나로서 「倭寇世界」

1) 象徴的인 뜻밖의 것은 「週刊朝日百科. 日本의 歷史」15號의 題目이 「海·環支那海와 環日本海」로 되고 있다.

가 例示된 것이다.<sup>2)</sup>

塚本씨의 論文이 발표된 1980년부터 6년 이상 지난 오늘의 현재에서 보면 歷史研究의 現狀이 크게 변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가 봐도 분명하다. 日本中世史의 분야에서 이 變化의 中心的 存在가 網野善彦씨였음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網野씨는 극히 短期間 내에 塚本씨가 말하는 人類社會史를 基軸으로 한 成果를 계속해서 발표하였다.<sup>3)</sup> 그러나 人類社會史의 觀點에서 歷史研究가 특히 文獻史學의 分野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정당하고 비판의 여지도 없다.

또 塚本씨가 例示한 여러가지 地域概念에 대하여 바로 正面으로 대응한 것은 村井章介씨였다. 村井씨가 제시한 地域概念을 내 나름대로 요약한다면 京都와 鎌倉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世界가 同心円狀으로 넓혀져 그 地域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海民을 주로 한 獨自의인 「環支那海」·「環日本海」라고 하는 地域이 존재한다고 하는 複合的인 모델인 것이다.<sup>4)</sup> 극히 魅力的인 모델이겠지만 試論으로 提示된 것이다. 이것도 또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筆者의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한다. 塚本씨가 말하는 「倭寇世界」, 村井씨의 「環支那海」라고 하는 地域概念은 直觀的으로는 成立하는 것이 아닌가고 推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實在를 確定하기 위해서는 그 地域의 具體相이 여러가지 점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本稿는 그런 準備作業 이면서 筆者 個人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研究의 出發點이 될 것이다.

準備作業으로서의 本稿의 目的은 「朝鮮王朝實錄」을 주된 소재로 하여 그 中에서 倭人, 朝鮮人을 限하지 않고 어떤 特定한 海民을 분석해 내어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生活狀態를 밝히는 데 있다. 그 검토를 통해 從來 그다지 注目

2) 塚本學 「日本史는 特異한 것인가. 全體會의 齊藤報告에 關連하여」(『歷史學研究月報』 248號, 1980年 ).

3) 1980年 以降에 限해서도 「日本中世의 民衆像」(岩波新書, 1980年)부터 「異形의 王權」(平凡社), 1986年)까지 多數가 있다. 그 中 한가지 例示한다면 「日本論의 視座」(『風土와 文化』 日本民俗文化大系1, 小學館, 1986年, 所取)를 들 수 있다. 여기서 網野씨는 大量의 文獻을 紹介하여 이제까지 氏自身에 의해 提示된 論點을 總括하고 있다.

되지 않았던 全羅道-濟州島-北九州의 交流의 重要性을 드러내고자 한다.

## I. 以船爲家

『漢書』에 「異地 以船爲家, 以魚爲食」<sup>4)</sup>이라고 한 異의 海民에 대한 記述을 볼 수 있다. 이 「以船爲家」와 유사한 표현이 어떤 類의 海民을 나타내는 慣用句로 定着하여 漢字文化圈에 넓혀졌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倭人の 海民을 대상으로 한 「以船爲家」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예를 소개하여 史料에서 그 실태를 確認하고자 한다.

1395年 日本國 回禮使 崔龍蘇의 귀국에 즈음해서 今川了俊은 僧宗俱를 使節로 同行시킴과 동시에 朝鮮人 被虜 570餘人을 송환하였다. 다음의 引用文은 그 때 了俊이 朝鮮政府에 보낸 書狀의 一節이다.

蒙諭禁賊之事，整力於一岐・對馬已久矣，海中寇賊，以舟爲家，從風便無着落之處 今比于舊日，賊輩十之八九減少焉<sup>5)</sup>

朝鮮側의 요청에 따라 倭寇鎮壓에 全力을 다하여 거의 鎮壓한 功績을 了俊은 자랑하고 있다. 이 중에 문제가 되는 表現이 있다. 이 表現은 너무 簡潔하여 과연 어떤 특정한 海民을 염두에 둔 것인지 어떠한지가 分明치 않지만 移動生活을 보내고 있다고 表現하고 있어, 한편 了俊의 적극적인 倭寇對策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海民의 存在를 알고 있었을 可能性이 높다.<sup>7)</sup>

다음에 1472年の 例를 보면 이 해에 對馬島主 宗貞國은 特送使를 派遣하여

- 
- 4) 村井章介 「中世日本列島の 地域空間과 國家」(『思想』 732, 1985年).
  - 5) 『漢書』五行志·卷27中之上. 이 海民은 後世, 福建·廣東地域에 分布한 海上生活者 「단民」과 어떠한 系譜的인 연결이 있는 것을 생각되지만 筆者의 能力으로는 그 點까지 다룰 수는 없다.
  - 6) 『太祖實錄』卷8·4年 7月 辛丑.
  - 7) 今川了俊의 倭寇對策에 관해선, 田中體夫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75年) pp. 95~104.

前年の對馬島の使節에 대해 푸대접한 처사를抗議했다. 다음의 引用文은 그때의 貞國이 朝鮮政府에 보낸 書狀의 一節이다.

陋邦，本無土地之養，生民，無土宜之營，家資風俗，又無聊賴，而拙于活業，唯以舟船爲屋宅，而營生活於其中 一去陋邦 而近者兩三年，遠者數十年而歸，或長往而不歸 以是雖云我民，不能制止之<sup>8)</sup>

三浦의 恒居倭人, 對馬漁民은 자주 慶尙道·全羅道 海域에서 事件을 일으켜 統制의 責任者인 對馬島主는 朝鮮政府로부터 問責을 받았었다. 이것도 그에 대한 答변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責任을 다할 수 없는 貞國의 辨解로 여겨 引用文을 읽어내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表現된 海民의 存在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배(舟)를 생활의 중심으로 移動하고 長期間 歸島하지 않은 海民이 있었다는 것을 認定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의 例는 이미 田中健夫씨가 상세하게 紹介한 것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어 重複을 피하면서 말하고자 한다.<sup>9)</sup>

1501年 三浦의 亂에 의해 大量의 恒居倭人이 對馬島로 피해 갔다. 그 후 一部の 사람들이 舊浦로 돌아가 投降하였다. 그들은 拘留되고 訊問을 받았다.<sup>10)</sup> 다음의 引用文은 그 중의 한 사람인 平時羅(平次郎)의 供述이다.

且加延助機(倭之別種名) 散處博多等島 常載妻子於船中 以作賊爲事 面黑髮黃言語服飾異於諸倭 能射 又善用劍 潛入水底鑿船 尤其所長 本島島主 欲使加延 助機先來作賊矣<sup>11)</sup>

對馬島主가 三浦의 亂의 복수를 준비하여 先兵으로 「加延助機」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平時羅는 告白하고 있다. 田中씨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8) 「成宗實錄」卷19·3年 6月 庚午.

9) 「海亂鬼와 加延助機」(「對外關係와 文化交流」, 思文閣, 1982年) p. 365.

10) 「中宗實錄」卷12·5年 8月 辛丑·癸卯·甲辰.

11) 同前丁未.

「加延助機」는 「가연조귀」라고 읽어 海賊을 音通으로 읽은 것이다. 물론 平時羅는 誇張하고 있고 海賊의 모두가 바로 引用文의 海民은 아니었다.<sup>12)</sup>

그 海民에 대해 「倭之別種」·「面黑髮黃」·「言語服飾異於諸倭」라고 表現되어져 있어 대체적으로 이것에 기인하여 田中씨는 「朝鮮에 있어서도 원래 倭人인 平時羅에게 있어서도 唾棄해야 할 存在」<sup>13)</sup>로 이 海民에 대해 그 位置가 부여되었다. 약간 斷定에 지나친 評價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海民과 後年の 「家船」의 사람들을 系譜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확실히 이것을 그들에 대한 差別의 崩芽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差別이었던 어쨌든 간에 달리 家族을 배에 태워서 移動하는 海民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그들에 관한 記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潛入水底盤船」이란 표현이다. 1474년의 記事에 高麗末 倭寇의 싸움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故常入俎入我船下 用斧錯穴船底」<sup>14)</sup>라 하는 게 있다. 이 일로 해서 高麗末부터 倭寇 중에 「以船爲家」라고 표현되는 海民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以船爲家」에 유사한 表現을 단서로 해서 移動하며 特異한 生活을 영위하는 海民에 대하여 史料紹介를 겸해 檢討해 왔다.

이 海民의 分布地域은 對馬島·壹岐·北九州로 대개 倭寇의 根據地라 일컬어진 地域과 중첩되고 또한 그들이 倭寇의 構成員이었던 것도 確認되었다.

다음에 이와같은 海民에 관한 漁業史의 研究와 관련을 檢討해 보자.

羽原又吉씨는 日本文化에 있어서의 南方的 要素의 擔當者로서 海民을 措定하고 그것을 다시 두 種類로 나누어 論하고 있다. 한편은 潛水漁業을 하는 소위 海女이고, 또 한편은 「家船」의 사람들이라 했다. 前者의 根據地는 對馬島·壹岐·北九州 및 豊後로 西쪽으로 展開하고, 後者는 南九州(隼人と 同系로

12) 「中宗實錄」卷24·11年 4月 戊辰에도 「加延助奇」의 用例가 있다. 단, 이것은 海賊一般을 나타내고 特定한 海民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平時羅의 主張에도 불구하고 朝鮮側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13) 「海亂鬼와 加延助機」(「對外關係와 文化交流」, 思文閣, 1982年) p. 365.

14) 「成宗實錄」卷47·5年9月癸亥.

한다) 및 五島列島라고 했다.<sup>15)</sup>

또 中世의 海民을 넓게 檢討한 網野善彦씨는 松浦黨의 下人으로 되어 있는 海民에 대해 檢討했다. 그들은 賣買·相續의 대상이 되면서도 公事를 負擔하고(무엇인가의 權利가 保障되고 있다.), 또한 「一類」 및 그 上位單位 「一黨」이라 하는 共同組織을 갖는 꽤 自律的인 사람들로 배(舟)를 基礎로 한 生活을 營爲하고 潛水漁業도 行하고 있었다.<sup>16)</sup>

우선 羽原씨의 說을 검토해 보면 「以船爲家」로 표현된 海民은 分布地域으로는 前者에, 生活形態로는 後者에 比定된다. 그러나 網野씨가 檢討한 海民도 本稿에서 紹介한 海民도 文獻史料만으로는 어디에 해당된다 말할 수 없고 또 古代로부터 「海女」와 「家船」을 分化된 存在로 보는 羽原씨의 說도 先驗的인 假說이라고 評價할 만하지만 現時點에서는 斷定할 수 없다. 오히려 이 點도 포함해서 羽原씨의 先驅的인 業績을 批判·繼承하는 個別研究를 거듭해 갈 필요성을 痛感한다.

網野씨가 제시한 海民과 「以船爲家」라고 表現된 海民의 關連도 嚴密하게는 明確치 않지만 상당한 近似性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下人이며 또 한 自律性을 갖는 그들과 어떤 때는 領主를 따라 海賊질을 하고 어떤 때는 領主의 統制도 미치지 않는 海域에 家族을 태우고 長期間 出漁하는 「以船爲家」라고 表現된 海民을 연결지을 수가 있다.

以上 倭人을 對象으로 해서 特異한 生活形態를 운영하는 海民에 대해 檢討해 왔다.

## II. 水賊

14세기 後半에 猖獗한 倭寇도 成立된지 얼마 안되는 朝鮮王朝의 倭寇懷柔策

15) 羽原又吉 「日本古代漁業經濟史」(改造社, 1949年) pp. 262~270.

16) 網野善彦 「日本中世의 非農業民과 天皇」(岩波書店, 1984年) pp. 260~264.  
同 「古代·中世·近世初期의 漁撈와 海産物의 流通」(「鹽業·漁業」講座, 日本技術의 社會史 2, 日本論評社, 1985年) pp. 254~257.

과 南北朝動亂後의 九州의 政治的 安定에 의해 15세기 初頭에는 鎮靜化되고 더우기 1419년의 應永의 外寇에 의해 거의 肅통이 끊어졌다. 이 以後 1519년의 三浦의 亂까지 約 90年間 相對的으로는 平和의 通交의 時代가 된다. 그것은 世宗朝 以後의 朝鮮이 對馬島·壹岐·北九州를 中心으로 하는 西日本地域으로부터의 渡航船에 대한 여러가지 通交規定을 設定하고 그것을 朝鮮을 中心으로 하는 外交秩序로써 體系化한 것, 그것을 通交者들이 基本的으로 受容한 것에 의해 成立됐다.<sup>17)</sup>

그러나 平和的 通交의 時代에 있어서도 小規模이긴 하지만 倭寇는 出現했다. 단 그것은 漁業에 따르는 現象으로 前代의 組織的인 掠奪을 行하는 形態와는 달랐다. 그리고, 이와같은 散發的인 倭寇를 構成한 主體의 상당한 部分은 앞의 節에서 보인 「以船爲家」라고 表現된 海民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當時의 倭人漁船에 관한 出漁規定을 簡單히 紹介하자. 우선 첫째로 三浦의 恒居倭人에 대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出漁에 즈음하여 朝鮮의 船軍(水夫役に 課해진 사람)<sup>18)</sup>의 同業을 의무화한 것이다. 朝鮮水軍의 監視下에 漁船은 浦所附近, 즉 慶尙道 海域 一部에서의 操業을 許可받았다.

둘째로 對馬島의 漁民에 대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出漁 때 우선 對馬島主 發行의 文引(路引이라고 한다)의 所持가 義務화되었다. 그것은 巨濟島의 知世浦까지의 渡航許可證의 役割을 한다. 다음은 知世浦萬戶(現地 水軍의 責任者) 發行의 文引을 얻어 全羅道의 孤草島 海域(場所不明)에의 出漁가 許可된다.<sup>19)</sup> 以上の 規定에 의해 恒居倭人은 慶尙道·對馬漁民은 全羅道에서 각각 漁業을 行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 規定은 자주 파괴되었다. 가장 問題가 된 것은 出漁가 許可되어 있지 않은 全羅道 西南端의 湍域에의 越境이었다. 특히 이 곳은 海產寶庫이고

17) 拙稿「外交儀禮에서 본 室町時代의 日朝關係」(『史學雜誌』 91~98, 1982年).

18) 船軍의 軍은 本來, 軍隊와는 關係없이 力役을 課해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가령, 陸軍은 陵墓를 지키는 人부로 樵軍이 나뭇꾼이라는 점 그 用例는 多數가 있다.

19) 中村榮孝「三浦에 있어서의 倭人의 争亂」(『日朝關係史의 研究』 上, 吉川弘文館, 1985年) pp. 644~647.

朝鮮漁民도多數 出漁한 海域이다. 特히 15世紀末 이 海域에서의 倭人漁船의 海賊行爲가 頻發해서 朝鮮政府는 水軍의 強化, 對馬島主에의 抗議 등 여러가지 對策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sup>20)</sup>

그러나 全羅道·慶尙道 海域에서 여러가지 事件이 발생해 그 對策에 쫓기는 過程에서 朝鮮政府는 또 한가지의 問題가 거기에 있는 것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論全羅道觀察使 李克均·兵馬節度使朴埴·水軍節度使閔孝幹曰. 自張永奇 被誅盜賊 似可漸息 而今聞復熾…… 且沿海郡縣水賊肆行…… 期盡捕獲 以除 民害<sup>21)</sup>

이것은 近年(記事는 1474年の 것) 全羅道에서 盜賊·水賊이 橫行하고 있고 그 鎮壓을 行政·陸軍·水軍의 責任者에 命한 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더욱 文中의「張永奇」는 1469年末부터 이듬해 初頭에 걸쳐 全羅·慶尙 兩道에 있는 蟾津江 流域에서 大掠奪을 한 盜賊團의 首領의 이름이다. 이 盜賊團은 軍隊에도 싸움을 걸고 當時의 官憲에 強烈한 印象을 남겼다.<sup>22)</sup> 그 때문에 事件後에도 자주 그의 이름을 盜賊·水賊의 記事 속에 引用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水賊이다. 이것은 倭人에 의한 海賊行爲, 즉 倭寇·倭賊과 區別을 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 朝鮮人 海賊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같은 첫 用例가 언제부터 나타났는 지 嚴密히 檢討되고 있지 않지만 대

20) 同前, pp. 655~656.

21) 「成宗實錄」卷42·5年 5月 甲辰.

22) 1469年10月, 全羅·慶尙兩道에 있어서 盜賊의 橫行이 報告되어, 이어 그 首領이 張永奇(張永己라고 記述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름이라는 것도 判明되었다. 兩道の 境界地域의 道路封鎖, 軍隊의 搜策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掠奪을 하고 때로는 軍隊와 싸웠다. 그들의 活動地域은 蟾津江 上流의 智異山에서 河口까지 이르는 廣範圍에 이르고 있었다. 首領의 張永奇가 逮捕된 것은, 翌年正月21日이었다. 關係記事는 「睿宗實錄」卷8 元年 10月 癸酉에서 「成宗實錄」卷4·元年 3月 癸卯까지 多數 보인다.

개 引用文의 時期에 사용되기 始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단어가 사용되게 된 背景, 바꾸어 말하면 朝鮮政府가 朝鮮人 海賊을 認識하게 된 事件을 몇 개 例示해 보기로 한다.

1461年 對馬漁船 1隻 9名이 規定에 따라 知世浦에서 文引을 받고 孤草島로 向했지만 바람에 의해 서쪽 섬에 이르렀다. (아마 허가된 海域을 넘었다) 거기서 朝鮮漁船 12隻으로부터 攻撃을 받아 화살에 맞아 1名이 죽고 화살과 投石에 맞아 3名이 부상당했다. 漁民은 船內에 남은 화살을 증거품으로 知世浦萬戶에 호소했다.<sup>23)</sup> 이 事件의 報告를 받은 朝鮮政府는 全羅道 海域의 治安대책을 檢討함과 동시에 對馬島 漁民을 서울까지 불러 위로했다.<sup>24)</sup> 全羅道 海域에서는 여러 漁民이 복잡하게 섞여 操業을 하고 있고 倭人이 朝鮮人을 습격한다는 通常의인 形態를 逆轉시킨 事件이 언젠가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 以上으로 注目되는 것은 다음에 보여 주는 記事이다.

兵曹啓, 全羅道民, 多逃入海島者, 讀遣朝官刷還, ……澮等啓, 沿海之民, 逃入諸島, 或有釣魚·煮鹽爲業者, 或有耕稼爲生者, 或有往來興販者, 聞下推刷之令, 則挈家深入無人之島, 稍弛則還來, 或有長往不返者, 實非細故, 宜速刷還<sup>25)</sup>

全羅道 사람들이 沿海의 多島海 地域으로 도망해 있고 그와같은 사람들을 조속히 本貫에 刷還했으면 하는 兵曹의 啓로부터 이 記事는 시작되고 있다. 以後는 王의 召集에 의해 行해진 議論의 一部이다. 澮(沈澮) 등은 「沿海의 사람들은 多島海 地域으로 도망가 漁業·鹽業·農業·交易 등을 生業으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歸還 命命을 發하면 가족을 데리고가 또한 無人島로 도망가 버린다. 命命이 느슨해지면 다시 돌아온다. 또, 돌아오지 않는 者도 있다」라

23) 「世祖實錄」卷25·7年 7月 丙寅.

24) 同前, 7月 丁卯, 8月 癸酉·丙子, 9月 丙午.

25) 前註, 8月 癸酉.

26) 鹽干의 干도 軍과 똑같이 力役을 과해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로 달리 두 (海賊의 監視를 하다가 烽火를 올리는 사람) 등의 예가 있다.

고 진술하여事態의重大함을 호소했다.

官僚가 說明한 사람들의 生業 중, 漁業·鹽業에 관해서는 通常 다음과 같은 原則이 있었다. 漁業에 從事하는 사람이면 앞서 말한 船軍, 鹽業이면 鹽干<sup>26)</sup>이라는 役に 編成된다. 그러나 앞의 引用文은 이와같은 海民의인 사람들을 그와같이 編成하지 않아 그것이 治安上의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政府는 이와같은 사람들의 존재를 認識하지 않고는 안되게 되었다.

1469年에도 全羅道에서 對馬島 漁船이 朝鮮漁船에 의해 습격받은 事件이 보고되고 있지만<sup>27)</sup> 이 多島海 地域에서 언제나 倭人과 朝鮮人이 對立抗爭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1463年의 記事에 濟州島 北方에 있는 湫子島에 碇泊하고 있던 倭船 6隻 49名을 拿捕했다는 濟州按撫使의 報告가 있다. 그들은 規定에 따라 知世浦萬戶의 文引을 所持하고 있었지만 許可海域을 넘어 또한 武器와 朝鮮人 衣服을 所持하고 있었기 때문에 倭寇로 의심받았던 것이다. 朝鮮政府는 敬差官을 濟州島에 派遣해 調査를 명령했다. 그 결과 倭寇가 아니란 것이 判明되고 食料·衣服이 支給되어 歸還이 허가되었다.<sup>28)</sup>

즉 朝鮮人 衣服은 長期間 出漁하고 있던 그들이 朝鮮人들과 交易해서 얻었을 可能性이 컸던 것이다. 나중에 보듯이 水賊의 行動形態는 倭人과의 密接한 交流를 前提로 하지 않으면 理解할 수 없고 이것도 그것을 보여 주는 徵證일 것이다. 다음에 攻擊의 對象이 倭人이 아니고 朝鮮人에게 向해졌던 例를 紹介하자. 1472年 全羅, 慶尙 兩道의 行政·水軍의 責任者에게 沿海地域에서의 海賊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問責하여 그 勵行을 命했다. 다음의 引用文은 그 중에 海賊에 관한 具體的인 例이다.

又聞樂安將校金倍 順天居私奴裴永達, 玉山朴長命等三十餘人, 作黨乘四船持弓矢, 或詐爲倭人, 或爲濟州人 依泊諸島, 劫掠採海人, 又於邊邑, 放火作賊.<sup>29)</sup>

27) 「睿宗實錄」卷4·元年 3月 丁酉·丙午.

28) 「世祖實錄」卷31·9年 閏7月 辛未·乙亥, 11月 壬午.

29) 「成宗實錄」卷15·3年 2月 甲午.

樂安(全羅道)의 不級軍人, 順天(全羅道)의 私奴, 玉山(慶尙道)의 平民 등 30 余人이 沿海地域에서 여러가지 海賊行爲를 했던 것이 記錄되어 있다. 水賊이라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水賊임에 다름없다. 또 「或詐爲倭人, 或爲濟州人」이라 되어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掠奪을 받는 측의 사람들의 인식을 逆用한 姿勢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면 倭人만이 아니고, 濟州人도 海賊으로서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點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檢討할 충분한 根據가 있다.

그런데 또 한가지 朝鮮 사람들을 습격한 事件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康津萬德寺僧惠休等十七人, 乘船至順天內梁浦, 有賊十余人, 乘船着青衣, 作倭語, 拔劍突入船中, 擊殺惠休等二人, 盡掠財物, 向東南海洋去, 其船頗類慶尙道舟艦矣<sup>30)</sup>

1473年 全羅道 康津의 萬德寺의 僧惠休 一行이 東쪽을 向해 全羅道 順天의 內梁浦에 이르렀다. 거기서 푸른 옷을 입고 倭語를 사용하는 賊에게 습격당해 惠休 등 2名이 살해되고 掠奪을 당했다. 이어서 賊은 慶尙道 배를 닮은 배로 東南海上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이 事件의 概略이다.

引用文의 後略 部分에 院相(王을 보좌하는 重臣)들의 意見이 集約되어 「順天·光陽等處, 海賊假倭形, 掠奪人財物, 前日稍稍捕得, 今又如此」라고 기록하고 同日條의 全羅·慶尙 兩道の 行政·陸軍·水軍의 責任者에의 命令 속에도 「今聞順天府, 有海賊, 殺掠人, 此非倭寇, 恐我國人所爲也」라고 되어 있듯이 朝鮮政府는 이 事件을 朝鮮人 海賊에 의한 것으로 判斷했다.

引用文에 의하면 賊은 倭語로 사용하고 푸른 옷을 입어 慶尙道의 배를 사용했다. 倭語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倭人과의 交流를 얘기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에 關해서는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다. 問題는 푸른 옷이다.

이 點에 대해서 參考가 되는 두 개의 記事를 우선 제시해 보자. 하나는 140

30) 同前, 卷35·4年 10月 辛巳.

6年の記事로 諸道の 水陸軍士에 「青色防衣」를支給하는 것을定했던 것,<sup>31)</sup> 또 하나는 1491年の記事로 江原道에 「異服異言」의 사람이漂着하고 나중에 釜山浦의 恒居倭人인 것이 判明되지만 그 사람이 「着衣青班, 與倭相似」라고表現된 것이다.<sup>32)</sup> 前者를 취하면 倭人을 가장하면서도 옷으로 朝鮮人인 것이 判明되었다고 하는意味가 되고, 後者를 취하면 倭人海民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옷을 입고 僞裝했다는意味가 된다. 賊이 倭人을 가장한 點을 重視해서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後者의 立場을 취하기로 한다.

以上 몇 개의 具體的인 例를 제시해 봤지만 이와같은 사건이 頻發함에 의해 朝鮮政府는 朝鮮人 海賊의 存在를 認識하고 그것을 水賊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朝鮮政府는 水賊의 具體相을 더욱 認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Ⅲ. 豆禿也只·飽作干·頭無岳

여기서는 前節에서 제시한 水賊의 具體相에 대해서 朝鮮政府가 새롭게 인식을 깊게 해가는 過程을 검토한다.

그 具體相을 한 마디로 말하면 濟州島 出身의 海民의 것이었다. 本節의 表題에 붙인 세 개의 이름은 모두 다 그들을 가르키는 名稱이다. 그 名稱에 관한 설명도 포함해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순서적으로 紹介해 보자.

1477年 8月 慶尙道の 行政·陸軍·水軍의 責任者에게 沿海地域을 移動하는 海民의 本貫에로의 刷還을 命했다. 그 때 問題가 된 海民은 다음과 같이 說明되어 있었다.

道內泗川·固城·晉州地面, 濟州豆禿也只稱名人, 初將二三船出來, 今轉爲三十二隻, 依服爲盧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船體視倭, 尤牢實而迅

31) 「太宗實錄」卷12·6年 閏7月 辛未.

32) 「成宗實錄」券255·22年 7月 庚寅·甲午·乙未, 同卷 256·22年 8月 戊午.

疾則過之，恒以釣魚採蠶爲業，郡縣亦不能役，近處居民，皆以爲掠我國人者，疑是此徒<sup>33)</sup>

豆禿也只라고 自稱하는 海民은 慶尙道 南岸의 全羅道로부터의 海域에 나타나 점차로 增加해 왔다. 그들은 海岸에 잠시 住居하고 倭人의 衣服을 입고 있는 者도 있다. 言語는 倭語도 漢語도 아니고 배(船)는 倭船과 비교해서도 견고한 듯하고 속도도 빠르다. 해변가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습격하고 있는 者는 모두 이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개 이러한 內容이었다.

우선 豆禿也只라는 名稱부터 問題視하자. 引用文 및 後述의 記事로부터 이것이 自稱인 것이 判明된다. 또 漢字가 表意文字가 아니고 表音文字로서 사용된다. 그 경우 발음상의 問題는 內중의 只로 읽기는 「기」와 「지」가 있다. 단 當時의 地名 등을 吏讀로 表現한 경우 좁은 소견이지마는 「기」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것에 따라 豆禿也只를 「두독야기」라고 읽기로 한다.

語義에 대해서는 推定에 지나지 않지만 두 개의 解釋이 成立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古地名에 由來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蒙古語·朝鮮語·日本語의 古語에는 「기」·「시기」 등의 음으로 무엇인가에 周圍가 둘러싸여져 있는 地形을 가리키는 意味가 있었다. 이 경우 內중의 「只」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解釋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人間集團에 由來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也只」를 前音으로부터의 音調에 의해 變化한 것으로 本來의 音 「야기」라고 추정한다. 야기는 「子供」(日本語)의 뜻이기 때문에 全體는 豆禿의 子(야기)라는 意味가 된다. 豆禿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信仰의 對象, 또는 共通의 先祖 등 集團意識의 象徴이라 생각된다.<sup>34)</sup>

現在 이것 以上の 검토는 되어 있지 않아 識者로부터의 가르침을 기대한다.

다음에 그들의 生活形態를 검토해 보자. 좋은 漁場을 求해 各地로부터 모여 들고 移動하고 있는 것이 判明되지만 우선 問題가 되는 것은 言語이다.

33) 「成宗實錄」 卷83·8年 8月 己亥.

34) 金澤庄三郎 「一鮮同祖論」(刀江書院, 1929年) 第5章의 2·5 參照.

일부러「非倭非漢」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慶尙道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言語가 難解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 이상의 推論은 모래 위의 樓閣이겠지만 굳이 難解했던 原因을 推定하면 現在도 말해지는 濟州島 方言의 特異性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第I節에서 紹介한 加延助機의 言語가 特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獨自의인 語彙의 풍부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衣服에 대해서는 앞의 節에서 紹介한 例와 반대되는 立場에서 倭人과 朝鮮人 海民의 交流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과 비슷하게 沿海地域 사람들이 水賊=濟州島人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던 것도 確認할 수 있고 이것도 또 明確히 對應된다.

豆禿也只의 배에 대해서는 여기서 요약해서 검토해 보자. 倭船과 비교해서 견고하고도 또한 빠르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倭船이 극히 얇은 널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밖의 記事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sup>35)</sup> 견고성에 대해서는 틀림없다. 빠르기에 대해서는 그것과 相反하는 結果도 나와 있어<sup>36)</sup> 簡單히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在來의 漕船·兵船보다도 빨랐던 것은 틀림없다. 이와같은 性能을 갖춘 豆禿也只의 배를 朝鮮軍은 注目하게 되었다.

倭船作賊，風順則懸帆，無風則搖櫓 全是舟楫輕快 利於行用故也 請於諸浦，  
依豆禿也只船體制，造輕船以備不虞，<sup>37)</sup>

이것은 1489年 全羅道 陸軍責任者의 狀啓의 一節이다. 倭船의 빠르기에 對抗하기 위해 豆禿也只의 배를 모델로 해서 朝鮮水軍에는 大中小의 猛船이라는 兵船이 있고 攻擊·防禦 모두가 倭船보다도 한층 더 훌륭했다. 그러나 속도가 늦어 倭船을 쫓을 수 없다는 缺點이 있었다. 그 때문에 水軍은 일찍부터 唐船 琉球船·倭船 등을 연구해 왔지만 在來의 漁民들이 사용하고 있던 小型船에도 機動力이 있다는 點에서 注目했다. 「三板船」·「鼻居刀船」등은 그와같은 經

35) 「成宗實錄」卷37·4年 12月 壬午.

36) 同卷252·22年 4月 丙辰의 記事에 따르면, 倭船·濟州船·漕船을 모델로 해서 新造船을 만들고 경주시켰던 바, 빠르기는 위의 順이었다.

37) 同卷235·20年 12月 癸巳.

緯로 水軍에 編成하게 된 小型船이다.<sup>38)</sup> 위의 引用文은 그것과 같은 論理로부터의 提言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1477年の 引用文으로 돌려 이와같은 海民의 存在를 認識한 朝鮮政府의 對應<sup>39)</sup>을 알아 보자. 우선 同年 10月 15日 泗川의 濟州人 200余名에 부역을 시키지 못하고 近年의 水賊이 그들에 의해 行해졌다는 의혹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放置한 濟州島의 行政官을 問責해서 濟州敬差官의 派遣이 결정되었다.<sup>39)</sup> 다음날 濟州島 行政官의 責任을 묻는 文書가 製作되었다.<sup>40)</sup> 또 同日 兵曹로부터 問題의 濟州人의 배(船)를 兵船으로 사용하자는 意見도 이미 나왔다. 同月 25日 三浦의 恒居倭人和 濟州島로부터의 流移民이 함께 海防上의 問題가 되었다. 특히 濟州人에 대해서는 1467年부터 定期的으로 晉州·泗川·固城(以上 慶尙道)·興陽(全羅道)에 와 있었다는 것, 海民이 採集하는 海産物이 貴重하기 때문에 現地の 行政官이 그들을 倭遇하고 있었던 사실이 判明되고 海民의 行動을 統制하기 위해 路引을 發給해야 한다는 것이 主張되었다. 翌11月 2日 濟州敬差官이 任命되고, 同21日에는 近年 豆秃也只라고 자칭하는 濟州人 數千人이 妻子를 거느리고 배를 타 慶尙·全羅 兩道の 沿海를 移動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濟州島 行政官이 아무런 報告도 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는 文書를 가지고 濟州敬差官이 派遣되었다.<sup>41)</sup>

朝鮮政府의 對策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을 못보고 1482年이 되어도 濟州流移民이 倭語를 말하고 倭服을 입고 海賊行爲를 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38) 關連史料는 어느 것이나 『世宗實錄』: 卷6·元年 11月 乙卯, 同12月 辛未, 卷19·5年 正月 丁亥, 卷28·7年 5月 丁丑, 卷61·15年 閏8月甲寅, 卷81·25年 5月 丙年. 三板船의 構造를 名稱부터 推定한다면 日本의 周防大島の 산마이, 大三島の 산마이만들기와 近似한 것으로 생각된다. (『改訂綜合日本民俗語彙』平凡社, 1955年) 參照.

39) 『成宗實錄』卷37·4年 10月 己酉.

40) 同庚戌.

41) 同己未.

42) 同卷86·8年 11月 乙丑·甲申. 이 敬差官이 언제 돌아갔는지 잘 알 수 없다. 단지 翌年 4月, 서울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그 이전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되어 全羅·慶尙 兩道の 行政官에게 그 實情에 관한 報告를 求하고 있다.<sup>43)</sup> 이러한 狀況에서 또한 飽作干·飽作人이라는 名稱의 海民이 登場하였다.

1485年 4月 經筵(王에게 글을 講義하는 것) 終了後 어떤 官僚의 다음과 같은 啓가 문제로 되었다.

前日歷觀沿海諸邑，飽作干，結幕海邊，無定居，寄生船上，爲人勇悍，其船輕疾無比，雖暴風虐浪，略無畏忌，倭賊遇之，反畏避而去，臣見其船中，有大石數十，臣問所用，答云，遇倭船，用此石投擊，則無不破碎，沿海諸邑封進海產進品，皆飽作人所採也，臣又聞，飽作人往往却奪商船，掠殺人物，或爲人所逐，則遺棄倭鞋而去，似若倭人，然此則飽作干，亦且有害 請令沿海諸邑，隨其所在，曲加撫卹，上曰，飽作人其居無定，其性凶悍，不可使之離心，宜加存恤<sup>44)</sup>

여기에 登場하는 飽作干·飽作人이라는 名稱부터 설명하자. 각각 「포작한」·「포작인」이라 읽고 干을 빼고 한자는 表意文字로 써 사용되고 있고 전북잡이라는 뜻이다. 干은 앞의 節에서 말한 鹽干과 마찬가지로, 本來는 國家로부터 부여이 주어진 사람의 名稱이다. 現在 干은 「간」이라고 밖에 읽지 않지만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경우엔 「한」이라고 發音되고 있었다. (우연이지만 飽作干은 결과적으로 同音이 된다.) 단 飽作干이 國家로부터 役(부역)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明確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統制策이 문제가 되듯이 事實로써는 國家는 그들을 부여에 편성하고 있지 않았다.

또 朝鮮의 신분제도상 干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둔다. 干은 軍·尺·丁과 마찬가지로 대개 「身良役賤」, 즉 그 신분은 良民으로 役이 천하다고 表現되었던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약간 차별적인 語感이 있었다.<sup>45)</sup>

43) 同卷145·13年 閏8月 戊寅.

44) 同卷177·16年 4月 癸亥.

45) 朝鮮의 身分制를 總括的으로 다룬 研究는 좁은 소견이지만 접하지 못했다. 따라서 本文에서 서술한 것은 私見에 불과한다. 今後의 檢討를 必要로 하고 있다. 더욱 私見을 제시한다면 朝鮮의 社會에 賤民의 代表라고하는 白丁—高麗時代의 禾尺이 朝鮮初期에 改稱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強烈한 差別은

예를 들면 1414년의 記事에 忠淸·全羅·慶尙道로부터 首都에 稅穀을 回漕하는 사람들의 요망으로 그들의 名稱을 水站干에서 水夫로 變更했다고 하고 있다.<sup>46)</sup> 이것은 干이 갖는 차별적인 語感을 싫어했던 때문이다.

다음에 飽作干의 生活形態에 대해서 檢討해 보자. 海岸에 임시 住居를 하고, 배를 타 移動하는 등 앞서의 豆禿也只과 같았다. 또 그들은 倭賊도 도망갈 정도로 強하고 船內에 投石用的 돌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앞의 節에서 본 1461年 對馬島의 漁民이 습격받은 사건으로 화살만이 아니고 投石에 의한 공격도 받은 것을 소개했지만 그것과 對應된다. 또한 습격한 배로부터 도망갈 때 倭人의 履物을 두고 갔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戰術의 묘안이 아니고 倭服·倭語와 함께 倭人과의 交流를 얘기해 주는 事實이다.

이와같은 海民의 存在를 왕은 우려해 引用文 末尾에 있듯이 그들을 優待해 國家의 統制下에 들 것을 命했다. 그러나 豆禿也只와 같이 별로 進行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經過를 간단히 추적해 보기로 하자.

실은 이보다 2年前 飽作人을 統制하기 위하여 그들의 濟州島에로의 刷還을 재촉하고 또한 出漁 時 路引의 所持를 의무화하고 배를 등록하도록 결정되어 있다.<sup>47)</sup> 그러나 그것은 별로 실행되지 않은 듯하다.

1485年 閏4月 11日 飽作干에 관한 것이 問題가 되었을 때, 어느 官僚는 「此輩採海賣買以生, 或以供諸邑進上 守令以故不編戶爲民」<sup>48)</sup>이라고 피력해 海民이 採集하는 海產物이 貢納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戶籍에 編入하지 않는다는 現地의 行政官의 態度를 분명히 했다. 飽作干의 立場에서 보면 行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意味하고 앞의 豆禿也只와 똑같은 事情이 있었던 것이 判明된다. 이어 同19日 兵曹의 啓에 근거하여 飽作干의 統制에 대해서 여러가

---

16世紀 이후의 것이라 생각된다. 15世紀에 있어서는 差別的인 움직임과 그것을 독자 生活形態로선 白丁의 力量의 拮抗하고 있어 그 樣相은 後世와는 매우 틀리다. 또 政府도 그들을 良民이라고 그 위치를 삼는 견해가 주류였다.

46) 「太宗實錄」 卷28·14年 11月 丙辰.

47) 「成宗實錄」 卷161·14年 12月 乙丑.

지 意見이 나왔다. 그 兵曹의 啓를 다음에 제시한다.

濟州出來飽作人等，本無恒産，專以捉魚爲業，扁舟載妻子，流寓海曲，所至之處，如有不愜，旋即逃散，雖去就無常，不得已沿海依止賣魚資生，固不可嚴法以治之，亦不可無法以馭之，當時現在諸邑者，照名置簿，考年歲容貌形標給牌，又烙印所持船隻，令所管萬戶，擇定頭目檢舉，毋得任意出入，如欲往來他境者，給行狀，且常時進上物膳，令觀察使從經定數，使逐生業，若守令侵漁，使之逃散者，啓聞罷黜，飽作人等，不畏法令，無形牌，無標船，無行狀，境外任意出入者，所在萬戶·守令，捕捉科罪，使之漸知法令，以安其業<sup>49)</sup>

이 啓는 家族을 배에 태워 이동생활을 하고 問題가 생기면 그 지역을 떠나는 飽作人에 對해 本貫의 濟州島에서는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行政官·水軍에 統制의 責任을 추궁하는 것을 要望한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그들의 年令, 身體上의 특징을 기록한 名籍의 제작, 배의 등록 및 各集團의 頭目을 定하는 것이었다. 또 行政官에게 의무화한 海産物의 貢納品定數의 減額도 要請했다. 이것에 의해 行政官이 海民에 의지하는 比率을 줄이려고 意圖했던 것이다.

이 啓에 대해서 몇개의 意見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승인하고 王의 裁可를 얻었다. 以上이 飽作干에 對한 統制策이지만 그 실행은 곤란했다. 1489年 全羅道 등을 순시한 官報의 啓에 의하면 沿海의 사람들이 水賊=飽作干에 遭遇하면 酒食으로 대접하고 被害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또한 行政官도 귀중한 海産物이 供給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만일 行政官이 그들에게 壓迫을 가하면 곧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다.<sup>50)</sup> 飽作干과 沿海民, 飽作干과 行政官의 관계가 以上과 같은 限 그들을 統制하고 부역에 편성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또 飽作干이 行政官의 私的인 支配下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48) 同卷178·16年 閏4月 辛卯.

49) 同己亥.

50) 同卷226·20年 3月 癸酉.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鮑作干의 입장은 강했다. 網野善彦씨가 檢討한 松浦黨의 下人이 된 海民 以上으로 自律性 정도가 높았던 것은 틀림없다.

鮑作干이 이와같은 강한 입장을 얻을 수 있었던 最大의 이유는 전복을 採集할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복이 공납품으로 지정된 지역은 꽤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전부가 얕은 곳에서 採集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全羅道·慶尙道の 多島海 地域은 潮流도 심하고 또한 잠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기에 그들의 需要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行政官이 전복의 확보 때문에 鮑作干을 보호한 것은 貢納品으로써의 전복에 특별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1474年 전복採集 때문에 倭人과 朝鮮人의 싸움이 빈발하고, 전라도 해역의 방비가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sup>51)</sup> 그 記事에 의하면, 「大鮑」을 原料로 해서 「細引鮑」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공납하고 있었다. 어떤 관료는 「大鮑」의 채집이 싸움의 원인이고 「細引鮑」의 貢納定數의 減額을 해야한다고 主張했다. 結果的으로는 定數減을 승인했지만 애초에 王은 「細引鮑, 乃薦新之物」이라고 말해 그것을 거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薦新之物」이라는 것은 神에게 받치는 初物을 이르는 것이었다.<sup>52)</sup> 말하자면 鮑作干이 채집하는 전복은 王의 권위와도 직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해 온 바의 豆禿也只와 鮑作干은 同一한 것인지 어떠한지는 의문이 예상된다. 生活形態·朝鮮政府의 對應 등을 보는 한 그 차이를 지적할 수는 없다. 단 本稿에서 취급하는 史料 中에서 그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에 表題의 끝에 든 「頭無岳」에 관한 史料를 紹介한다. 1486年 慶尙道の 行政責任者가 沿海地域의 防備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sup>53)</sup> 거기서 注目되는 것은 「臣到昆明·泗川·固城·招集濟州來居頭無岳男女, 饋酒, 論以國令, 且詳問水路」라고 되어 있듯이, 慶尙道 南岸의 全羅道부터의 地域에 있는 頭無

51) 同卷47·5年 9月 癸亥. 註14)와 같음

52) 「細引鮑」은 아마 日本에서 말하는 鬚斗鮑에 상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과 같이 神饌이 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해야겠지만 이 點에 관한 檢討는 今後의 課題로 한다.

53) 「成宗實錄」卷197·17年 11月 癸亥

岳을 모아 술을 마시게 해 沿海地域의 水路에 대해 정보를 모아 또 「昆陽·晉州·泗川·固城, 分置頭無岳等, 皆能操舟逐浪, 正如飛鳥, 撫以安業, 緩急可用」이라고 해서 그들을 各地의 水軍根據地에 分置하고 危急할 때 이용하자고 하는 제안도 하고 있는 것이다. 단 제안에 대해서는 「頭無岳等, 本以海釣生利, 以船爲家, 無有定居, 緩急不可用」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이 頭無岳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1492年の 記事에 의해 明確해진다.

沿海頭無岳甚多, 濟州漢琴山, 或名頭無岳, 故俗稱濟州人爲頭無岳, 或書頭秃也只, 國家疑水賊, 必此輩所爲, 故今方推刷, 然此輩善操舟, 若用之, 以當倭賊, 誠爲有益<sup>54)</sup>

이것은 어느 관료의 의견으로 본래 頭無岳과 같은 존재는 濟州島에 刷遷해야 하겠지만 倭寇와 싸우게 하기 위하여 水軍으로서 사용하면 有益할 것이라고 하는 趣旨이다. 問題는 引用文 앞부분에 있다. 그것에 의하면 頭無岳이라는 것은 濟州도의 漢琴山의 別名으로, 그것이 轉해 濟州人을 頭無岳이라고 稱하게 되고<sup>55)</sup> 그것은 또 「豆秃也只」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 즉 表題에 든 세개의 名稱 中 豆秃也只과 頭無岳은 同一한 對象임을 보여 주고 있고, 前者는 自稱이고 後者는 他稱이었다. 그리고 飽作干에 대해서는 不明한 셈이 된다.

지금까지의 濟州島의 海民에 대해서 얘기해 온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첫째 朝鮮政府는 水賊問題의 發生에 의해 그들의 存在를 인식했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地의 行政官과 海民의 關係에는 상당한 역사성이 인정되는 것. 셋째 그 關係는 海民이 갖는 강한 전북채집의 能力(潛水漁業)과 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國家의 부역에 편성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行政官과

54) 同卷262·23年 2月 己酉.

55) 「新增東國輿地勝覽」38·濟州의 項에 漢琴山을 說明하면서 「一云頭無岳, 以峰峰皆平也」라고 하고 있다. 山頂의 形狀에서 이 別名이 생겼으리라 생각한다.

그들을 私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낮다는 것. 네째 濟州島의 海民을 主要한 구성원으로 하는 水賊은 倭語를 말하고 倭服을 입는 등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측이 倭賊인지 水賊인지를 識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예상된다는 것. 다섯째 同時에 그것은 濟州島의 海民과 倭人과의 密接한 交流를 말해 주고 있다는 것 등등이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조선정부가 全羅·慶尙 兩道の 海역에 대해 어떤 對策을 강구하려고 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課題로 삼고 싶다.<sup>56)</sup>

#### IV. 全羅道·濟州島·北九州

지금까지 「以船爲家」에 유사한 표현으로 一括되는 海民에 대해서 檢討해 왔다. 그들과 같은 生活形態는 當時의 社會에 있어서도 이미 특이한 存在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歷史的인 存在이고 發生·起源에 있어서도 그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主體的인 적응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人類가 고른 하나의 선택이고 그 後의 歷史가 그들을 특이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現時點에서 그들 自身の 역사를 구체적으로 더듬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집단의 文化 中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保存되었는가 하는 실문을 장래를 위해 留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느 時代에 있어서도 東아시아 海域의 交流에 있어서 그들과 같은 존재가 基層的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想定은 충분히 허용될 것이다.

실은 이 想定도 아직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개의 先行研究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56) 그 중에도 特別히 重要的 것은 以下の 事件이다. 1490年代가 되면 濟州島와 全羅道南岸을 연결하는 特別히 추子島近邊에서 海賊行爲가 頻發했다. 이 해적에게 濟州貢船까지 被害를 당하고 朝鮮政府도 對策에 苦慮치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海賊이 倭寇인지 水賊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없었다.

그래서 그와같은 연구에 이끌리면서 從來 별로 注目하지 않았던 交流루트를 假說의으로 提示해 보고 싶다. 그 假說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日·朝關係의 긴 역사를 통해 對馬島가 重要한 役割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경우 本稿에서 말한 것같은 海民의 存在를 暗默의 前提로 하고 또한 慶尙道-對馬島-北九州라고 하는 루트가 想定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濟州島 海民의 存在를 前提로 해서 全羅道-濟州島-北九州라고 하는 루트가 想定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前者의 루트가 室町-江戸時代에 公式루트로써 公認된 것에 대하여 後者에는 그와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先行研究를 더듬어 보는 限, 그 存在의 可能性을 검토하는 價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옛날 濟州島에는 耽羅라는 王朝가 있었다. 耽羅는 5世紀末, 南進한 百濟에 이어 7世紀 後半에 百濟를 멸한 新羅에 服屬됐다.

그러나 王朝의 形態는 유지되고 統一新羅時代가 되어도 日本의 天智·天武·持統朝에 자주 使節을 파견했다. 이 王朝는 高麗가 耽羅郡을 설치한 12世紀 初頭까지 存續한 것이다.<sup>57)</sup> 이 사이 耽羅의 역사를 通時的으로 기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곤란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의 섬에 성립한 王朝가 이와같이 장기에 걸쳐 存立한 것 자체에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百濟나 新羅가 耽羅를 복속시키기 전에 반드시 지금의 全羅南道를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이것은 全羅道 南岸과 耽羅의 깊은 交流가 그 以前부터 存在하고 있었던 것을 意味한다. 또 그와 동시에 天智·天武·持統朝에의 遣使에 관해서 耽羅와 北九州의 交流도 想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때의 遣使에는 다음과 같은 政治的 事情도 推定된다. 百濟 멸망에 의해 耽羅는 新羅를 새로운 盟主로 섬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전통에 의해 王朝內에는 親百濟派, 百濟亡命人이 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百濟와 친했던 日本에의 遣使의 움직임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sup>58)</sup> 以下 이와같은 想定이

57) 李弘植 「國史大辭典」(知文閣, 1963年) 「濟州島」의 項,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의 研究」(吉川弘文館, 1985年) p. 220.

58) 鈴木靖民 前掲書 p. 220에 耽羅의 王權을 過大視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主

가능한 연구성과를 소개하면서 그 時代를 따라가 보자.

9世紀 前半 東아시아 海域交流의 主役이 新羅人이고 그 중에서도 張寶高(保高)라는 사람이 代表的인 人物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今西龍씨의 古典的 勞作이 있고, 石上英一씨도 近年 今西氏의 成果를 답습하여 당시의 交流로부터 日本人의 親新羅와 反新羅라고 하는 두 개의 姿勢의 並存을 明示했다.<sup>59)</sup>

이 兩氏의 연구에 의해서 다시 한번 張寶高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張寶高는 唐에서 軍人으로서의 修鍊을 쌓고 全羅道 南岸의 莞島를 거점으로 楊子江 下流로부터 山東半島, 遼東半島로부터 北九州까지의 東아시아 海역을 행동반경으로 해서 各地로부터 흘러들어오는 數千人的 部下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그 힘을 背景으로 淸海鎮大使로 任命되고 또한 당시의 왕위계승에도 영향 을 줄 정도로 힘을 가졌다.

그런데 그가 거점으로 하고 또한 淸海鎮이 있었던 莞島는 지리적으로 보아 濟州島에의 현관의 하나였고 전라도 海역 交通거점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또 그가 임명된 淸海鎮大使의 職務는 전라도 海역의 안전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當該 海域의 지배자인 것을 新羅로부터 公認받은 것도 뜻할 것이다.

이와같은 입장에 있는 그가 敵對的이건 友好的이건 耽羅와 정치적으로 關係 없이, 또한 그의 支配下에 탐라출신이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全羅道와 北九州의 交流가 가능했던 것은 그것이 前提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13世紀 後半 元의 침략에 대해 고려는 三別抄의 亂으로 대응했다. 그 反元 運動을 소재로 해서 村井章介씨는 元·高麗·日本의 국제의식을 비교 검토함

---

張이 보이지만 朝鮮半島의 王朝의 直轄領으로 된 것을 高麗에서부터라는 事實은 역시 여기에 王朝의인 形態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졌다는 狀況證據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59) 今西龍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를 읽고 나서 (『新羅史研究』近澤書店, 1933年), 石上英一 「古代國家와 對外關係」(『講座日本歷史』2, 東京大學出版會, 1984年)

과 동시에, 몇 개의 흥미깊은 사실을 명확히 했다.<sup>60)</sup>

本稿의 입장에서 村井씨의 성과를 보면 두 개의 점이 주목된다. 하나는 三別抄가 패배할 때까지 더듬은 코스이다. 그것은 江華島로부터 朝鮮半島 西岸을 南下해 전라도 남단에 있는 珍島에 진을 치고 이어 濟州島에 이르러 거기서 패한다. 이 사실 자체 三別抄가 海上勢力에 의해 支持되었던 것을 보여 주고 있다. 村井씨도 또 元·高麗軍이 制海權을 장악할 때까지 三別抄의 진압에 고생했다는 것을 力說하고 있고 그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종래 元의 뜻을 받은 고려정부가 日本에 보냈다고 되어 있던 1271年の 高麗牒狀을 根本誠·石井正敏 兩氏의 분석에 따르면 三別抄가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서 그 의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도 또 三別抄가 해상세력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使節의 파견은 三別抄가 공격을 받아 本據를 珍島로부터 濟州로 옮기는 時期와 중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時期에 日本에 구원요청을 하는 발상자체가 全羅道-濟州島-北九州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일 것이다. 文永의 役의 元·高麗軍이 慶尙道-對馬島-北九州라고 하는 코스를 택한 것과는 對照的이었다.

14世紀 後半 朝鮮半島를 중요한 對象으로 하는 倭寇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時代 倭寇鎮壓에 의해 名聲을 얻은 고려의 武將은 몇 사람이나 되지만 그 중의 한 사람 李成桂(후에 朝鮮國 太祖)에 關해서 有名한 倭寇鎮壓戰, 南原山城싸움의 모습이 「高麗史」 등에 기록되어 있다.<sup>61)</sup> 田中健夫씨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그 싸움의 概略은 다음과 같다.<sup>62)</sup>

1380年 倭寇와 高麗軍의 싸움이 全羅道內陸部 各地에서 있었다. 그것은 慶尙道와의 경계로 되어 있는 智異山으로부터 서쪽으로 光州까지의 연장선상에 그 戰線은 있었다. 南原山城의 싸움도 그 중의 하나였다.

60) 村井章介 「高麗·三別抄의 叛亂과 蒙古襲來前夜の 日本」 上·下 (「歷史評論」 p. 382·384, 1982年).

61) 「高麗史」 卷126·邊安烈傳, 「李祖實錄」·「太宗實錄」 卷1·辛酉 6年.

62) 田中健夫 「倭寇」:(教育社歷史新書, 1982年) pp. 32~34, 「週刊朝日百科·日本の 歴史」 15號(朝日新聞社, 1986年).

李成桂가 인솔하는 고려군은 倭寇의 강력한 저항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敵軍의 大將은 白馬에 걸터 앉아 있는 強力無比한 소년으로 고려군은 그를 두려워 하여 「阿只拔都」라고 부르고 있었다.<sup>63)</sup> 李成桂는 처음엔 阿只拔都의 용맹성을 애석하게 여겨 생포하려고 했지만 부하가 그 위험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포기하여 결국은 화살로 사살했다. 大將의 죽음에 의해 倭寇는 무너지고 李成桂가 이끄는 고려군은 승리했다. 강물은 數日間 피로 물들었고 또 적군의 말 1600필 남짓을 포획했다. 倭寇의 포로로 되어 있던 첩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阿只拔都는 처음에는 섬에 살아 조선반도에 갈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반도에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本稿의 입장에서 이 싸움을 본 경우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말이었다. 阿只拔都의 白馬, 포획한 다량의 말, 어느 것도 倭寇에 騎馬隊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李成桂의 유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 과장했다고 해도 倭寇에 騎馬隊가 있었다는 事實은 아마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五島列島·對馬島를 비롯 九州에서도 말은 供給할 수 있었지만, 騎馬隊를 구성할 정도의 多量의 말은 濟州島 以外에서는 아마 공급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周知하다시피 元이 三別抄의 亂을 진압한 후 濟州島를 直轄化하고 또한 牧場을 설치하여 多量의 말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제도는 朝鮮時代에 들어서 계속되고 있었고, 당연 14世紀 後半의 倭寇時代에도 多量의 말이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阿只拔都 자신이 제주도 출신일 가능성 조차도 있는 것이다.

이 事例로 濟州島-北九州의 교류를 보여 주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만일 이 倭寇 속에서 倭人의인 要素를 抽出해낼 수 있다면 그들이 濟州島-北九州 사람들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세울 수 있다.

以上 先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꽤 대담한 해석을 해 봤다. 그런데 本稿가 想定하는 루트의 結果點이 되는 濟州島(耽羅)에 대해서 15世紀 中葉에

63) 金澤庄三郎「日鮮同祖論」(刀江書院, 1929年) pp. 114~115에 의하면 阿其는 朝鮮語로 小兒, 拔都是 蒙古語로 勇敢無敵의 뜻이다.

完成된 『高麗史』는 다음에 제시하는 것 같은 주목할 만한 開國神話を 남겼다.

耽羅縣 在全羅島南海中，其古記云，大初無人物，三神人從地從出，其主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一日見紫泥封藏木函，浮至于東海濱，就而開之，函內又有石函，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開石函，出現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乃曰，我是日本國使也，吾王生此三女云，西海中岳，降神子三人，將欲開國，而無配匹，於是命臣，侍三女以來，爾宜作配，以成大業，使者忽乘雲而去，三人以年次分娶之，就泉甘土肥處，射矢卜地，良乙那所居，曰第一都，高乙那所居，曰第二都，夫乙那所居，曰第三都，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sup>64</sup>

日本・朝鮮의 神話を 關連地域의 神話와의 比較研究에 의해 분석・類型化한 三品彰英씨에 의하면 「이 신화중 특히 주의하고 싶은 요소는 女子가 상자배로 五穀의 씨앗과 駒犢과 함께 표착했다고 하는 點이다. 이 神女의 本國이 日本이라고 하는 것은 神話의 二次의인 變容으로 아마 原態는 바다 건너의 나라, 소위 와따쓰미의 나라라고도 말할 만한 類였을 것이다.」라고 지적해 南方海洋民族과의 關係를 가장 명확히 보여 주는 상자배 漂流型의 代表로서 그 위치를 밝혔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하는 神話を 慶尙南道・對馬島・壹岐・九州로부터도 제시되었다.<sup>65</sup>

東아시아 海域에 있어 南方 海洋民族과의 關係를 보여 주는 神話類型이 널리 발견된다고 하는 지적은 흥미가 있다.

羽原又吉씨가 日本文化의 南方의 要素의 담당자를 특히 海女型和 家船型의 海民에서 찾는 것은 第I節에서 얘기했지만 더우기 氏は 濟州島와 日本의 海女를 出自와 生活基盤도 同一한 海民이라고 그 위치를 밝혔다.<sup>66</sup>

三品씨가 제시한 神話의 주인공을 羽原씨가 말하는 海民이라 하는 것으로

64) 『高麗史』 卷57.

65) 三品彰英 「神話와 文化史」·(『三品彰英論文集』 第3卷, 平凡社, 1971年, 初版을 同書名으로 大八洲出版에서 1948년에 出刊됨. pp. 382~408.

66) 羽原又吉 「日本古代漁業經濟史」(改造社, 1949年) pp. 307~309.

兩者の 결론을 一致시킬 수가 있다. 단, 羽原씨가 앞의 判斷의 根據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當否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 本稿 第I節과 第III節에서 제시한 海民의 분포지역과 三品씨가 제시한 神話의 분포지역은 기본적으로는 一致하고 있다. 아마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들 海民이 상자배 漂流型인 神話를 가져다 준 南方 海洋民族의 子孫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以上에서 얘기했던 것은 어느 것도 推論에 불과하고 神話와 特定の 海民을 연관지우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神話에 대해서 問題化한다면 三品씨가 「二次的인 變容」이라 말했던 部分에 대해서 일 것이다. 즉 상자배의 本國이 바다 건너의 나라와 와따쓰미의 나라는 아니고 왜 日本에 固定했는가 하는 點이다.

이와같은 設問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濟州島와 北九州의 交流의 歷史的인 堆積이 이 「二次的인 變容」을 가져 왔다고도 대답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해 온 여러가지 想定은 혹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 맺 음 말

第I節부터 第III節까지는 史料紹介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史料에 忠實한 내용이 되었음에 비해 第IV節은 先行研究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나 자신의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다소 空想的이 되어 밸런스가 좋지 못한 구성이 되어 버렸다. 이 점에 관한 변명을 本稿의 결론으로 한다.

첫째, 從來의 倭寇研究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朝鮮半島를 對象으로 한 倭寇에 대해서는 禾尺·才人 등 被差別民(이 관점 자체도 16세기 이후로 顯然化하는 差別意識을 高麗時代까지 거슬러 간 가능성이 있다.)이 倭人和 內通하기도 하고 그들 자신이 倭人을 가장해서 약탈을 했던 것은 명확하지만 全體의 人상으로서는 倭人을 主體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第IV節에서도 소개했듯이 倭寇에 관한 記事를 散見하면 그 전부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 前提에 서지

않는 限, 倭寇와 高麗軍과의 싸움은 內亂 또는 전쟁이라는 形容이 적합하다는 樣相을 띠고 있다. 이것은 倭寇에 朝鮮國內의 상당한 세력, 특히 海上勢力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本稿에서는 그 세력의 基層部分을 담당하는 요소로서 濟州島의 海民을 措定하려고 했던 것이다.

둘째, 第Ⅳ節에서도 얘기했듯이 日·朝의 교류루트로써 對馬島를 結絶點으로 하는 暗默의 前提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朝鮮政府 등이 「三島의 倭寇」라고 하는 경우 通常적으로 對馬島, 壹岐, 松浦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對馬島를 媒介로 해서 壹岐, 松浦를 보고 있고, 그것에 따른 연구도 많다. 私見에 의하면 이것은 『朝鮮王朝實錄』, 즉 當時의 朝鮮政府의 견해였다.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 굳이 全羅道-濟州島-北九州라 하는 루트를 想定한 것이다. 어쨌든간에 濟州島가 문제가 된다. 今後를 展望해 보면 本稿와 같은 검토를 거듭함에 의해 언젠가는 東아시아 海域에 있어서의 濟州島와 對馬島의 역할 및 兩者의 比較가 가능하게 될 것이리라 믿어 본다.